

4. 성서적 사회 정의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정의의 개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라고 명령하셨다. 정의는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 편에 서서 돕고 베풀고 보살피는 것이다.

성경에서 정의를 실현한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주인공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은 정의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A 미스바: 약자를 위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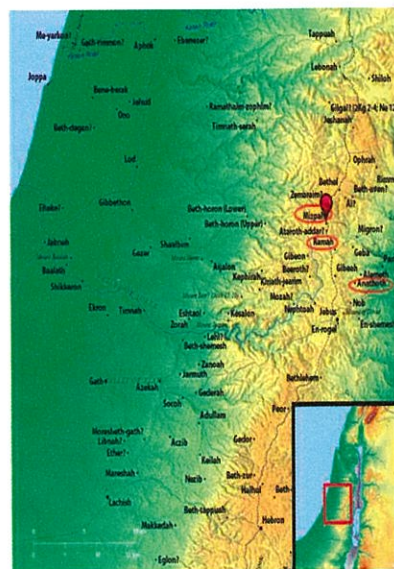
‘미스바’의 어원과 의미

미스바는 ‘망대’ 또는 ‘파수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스바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 지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정의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파수하다’라는 말은 지도에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여러 곳에 ‘파수대’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파수대는 높은 망루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즉 높은 자리에서 잘못을 저지르는지를 살피는 것을 정의라 할 수 있다.

미스바의 정의가 실현된 성경의 예

성경에서는 ‘미스바’라는 지역 이름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만큼 미스바의 역사적 전통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전통 안에는 땅을 공평히 나누는 토지분배에 관한 정의, 또 잘못된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스바’의 정의에 관한 것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가져야 하는 사랑과 정의이다.

미스바의 정의를 나타내는 성경 내용은 이렇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이스라엘 미스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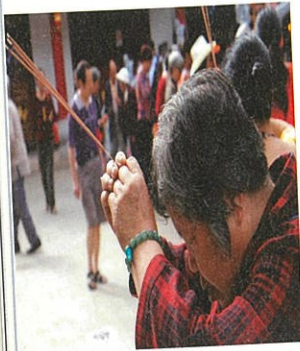
남다른 힘과 깊이가 있다. 예수님은 참된 행복을 결코 외적인 상태에 있지 않고 우리의 내적인 상태에 있음을 말씀하신다. 외적인 상태란 돈이나 명예나 건강, 은 성공 따위를 말한다. 내적인 상태는 우리의 마음, 세상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이고, 기독교가 영구적으로 추구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자신의 성품과 인격에서 비롯된 열 가지의 복을 소개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이다. 이 내용을 한 구절씩 읽고,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그 의미를 음미해 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기에 나열된 여덟 가지 항목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각각의 복은 모두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마음과 성품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행복할 것이라고 보장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되므로 여덟 가지 축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 자리에 여러분도 서 있고 싶지

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현실에서는 너무나 실천하기 힘든 부분이



궁극적인 존재의 소망

우리는 현실의 삶에 유한한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더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기도 한다. 우리는 치열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삶의 어느 순간에 신적인 현존을 느끼고 그의 손길을 느끼며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받는다.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볼 때, 자연의 엄청난 위력이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접하고 낮을 잃을 때, 해맑은 어린이들의 웃음 속에서, 혹은 초인적 희생이나 사랑과 용서의 감동적 이야기에 눈물 흘릴 때, 또는 거짓으로 포장된 껍데기를 벗어나서 참 나를 찾도록 촉구하는 내면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 올 때, 우리는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며, 인간의 삶은 잔인한 생존경쟁 이상임을 느낀다.

봄이 되어 앞으로 무성했던 나무들이 겨울이 되면서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시간의 무상함과 생명의 유한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봄이 생명의 탄생과 환희를 노래하는 계절이라면 가을은 생명의 소멸과 덧없음을 의식하게 되는 계절이다. 도대체 이 모든 생명의 나고 죽음이 무엇 때문이며, 끝없이 되풀이되는 생명의 순환 과정이 어떤 의미나 목적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묻게 된다.

인간은 왜 이렇게 유한 속에서 무한을 생각하며 한계 속에서 그 이상을 생각하는가? 인간은 '자기초월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초월한다는 것은 현재 자신이 한계와 유한성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하여 자기를 우주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성숙한 존재로 변화해 가면서 마침내 자신을 완전히 실현 완성하려는 신비한 열망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궁극적인 실재와 만남

틸리히(P. Tillich)는 "종교란 인간 존재의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와 관계된 인간의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동서양의 신개념, 즉 인격적 개념과 형이상학적 개념을 포괄하는 '궁극적 실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종교를 정의하였다.

궁극적인 관심은 '참 실재'에 대한 하나의 지시용어이자 우주의 근원을 뜻하는 종교철학적 용어이다. 이 용어는 유한한 인간의 모든 언어적 사유의 개념과 생각을 뛰어넘는 '존재 그 자체'(Being itself) 혹은 '실재 그 자체'(Reality itself)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기초월에 대한 인간의 추구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로서의

종교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처럼 인간은 궁극적 물음(삶과 죽음, 악과 고통, 존재와 무, 유한과 무한 등)에 대해 묻고 답을 찾으려 한다. 여기에서 '종교는 성스러운 실재(實在)와의 만남'이다. 이것은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경험을 갖게 하고, 삶의 의미와 역동성을 부여하게 한다.

종교현상은 지구 위에 생존하는 많은 생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볼 수 있는 특유한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Homo Sapience)이며,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존재(Homo Faber)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동물(Homo Religious)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종교를 통해 인간은 인간 본래의 모습, 궁극적 실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교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성스러운 실재와의 만남은 그 어떤 경험보다도 가장 강렬하고 본질적인 경험으로서 삶의 의미와 역동성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B. 종교의 역할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 '궁극적 실재'로서의 종교라는 관점에서, 종교의 역할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는 궁극적인 실재를 찾도록 돕는다. 사람은 자기의 유한성과 한계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를 초월하는 궁극적인 실재와의 관계를 찾도록 도움을 준다.

둘째, 종교는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궁극적인 실재와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며, 인간의 행동에 목적을 부여한다. 그리고 각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의식,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삶의 무의미함과 허무함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셋째,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스스로를 낮추고 비우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참된 종교는 인간이 자신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긍정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역동적이 된다.

●인간은 종교를 통해 본래의 모습, 궁극적 실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교현상들이 나타난다

●어떤 성스러운 실재와의 만남은 그 어떤 경험보다도 가장 강렬하고 본질적인 경험으로서 삶의 의미와 역동성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궁극적인 존재의 소망

우리는 현실의 삶에 유한한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더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기도 한다. 우리는 치열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삶의 어느 순간에 신적인 현존을 느끼고 그의 손길을 느끼며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받는다.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볼 때, 자연의 엄청난 위력이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접하고 낮을 잃을 때, 해맑은 어린이들의 웃음 속에서, 혹은 초인적 희생이나 사랑과 용서의 감동적 이야기에 눈물 흘릴 때, 또는 거짓으로 포장된 껍데기를 벗어나서 참 나를 찾도록 촉구하는 내면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 올 때, 우리는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며, 인간의 삶은 잔인한 생존경쟁 이상임을 느낀다.

봄이 되어 잎으로 무성했던 나무들이 겨울이 되면서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시간의 무상함과 생명의 유한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봄이 생명의 탄생과 환희를 노래하는 계절이라면 가을은 생명의 소멸과 덧없음을 의식하게 되는 계절이다. 도대체 이 모든 생명의 나고 죽음이 무엇 때문이며, 끝없이 되풀이되는 생명의 순환 과정이 어떤 의미나 목적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묻게 된다.

인간은 왜 이렇게 유한 속에서 무한을 생각하며 한계 속에서 그 이상을 생각하는가? 인간은 '자기초월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초월한다는 것은 현재 자신이 한계와 유한성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하여 자기를 우주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성숙한 존재로 변화해 가면서 마침내 자신을 완전히 실현 완성하려는 신비한 열망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궁극적인 실재와 만남

틸리히(P. Tillich)는 "종교란 인간 존재의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와 관계된 인간의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동서양의 신개념, 즉 인격적 개념과 형이상학적 개념을 포괄하는 '궁극적 실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종교를 정의하였다.

궁극적인 관심은 '참 실재'에 대한 하나의 지시용어이자 우주의 근원을 뜻하는 종교철학적 용어이다. 이 용어는 유한한 인간의 모든 언어적 사유의 개념과 생각을 뛰어넘는 '존재 그 자체'(Being itself) 혹은 '실재 그 자체'(Reality itself)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기초월에 대한 인간의 추구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로서의

종교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처럼 인간은 궁극적 물음(삶과 죽음, 악과 고통, 존재와 무, 유한과 무한 등)에 대해 묻고 답을 찾으려 한다. 여기에서 '종교는 성스러운 실재(實在)와의 만남'이다. 이것은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경험을 갖게 하고, 삶의 의미와 역동성을 부여하게 한다.

종교현상은 지구 위에 생존하는 많은 생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볼 수 있는 특유한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Homo Sapiens)이며,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존재(Homo Faber)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동물(Homo Religiosus)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종교를 통해 인간은 인간 본래의 모습, 궁극적 실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교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성스러운 실재와의 만남은 그 어떤 경험보다도 가장 강렬하고 본질적인 경험으로서 삶의 의미와 역동성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B. 종교의 역할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 '궁극적 실재'로서의 종교라는 관점에서, 종교의 역할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는 궁극적인 실재를 찾도록 돕는다. 사람은 자기의 유한성과 한계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를 초월하는 궁극적인 실재와의 관계를 찾도록 도움을 준다.

둘째, 종교는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궁극적인 실재와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며, 인간의 행동에 목적을 부여한다. 그리고 각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의식,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삶의 무의미함과 허무함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셋째,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스스로를 낮추고 비우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참된 종교는 인간이 자신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긍정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역동적이 된다.

●인간은 종교를 통해 본래의 모습, 궁극적 실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교현상들이 나타난다

●어떤 성스러운 실재와의 만남은 그 어떤 경험보다도 가장 강렬하고 본질적인 경험으로서 삶의 의미와 역동성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종교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처럼 인간은 궁극적 물음(삶과 죽음, 악과 고통, 존재와 무, 유한과 무한 등)에 대해 묻고 답을 찾으려 한다. 여기에서 '종교는 성스러운 실재(實在)와의 만나는 것이다. 이것은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경험을 갖게 하고, 삶의 의미와 역동성을 부여하게 한다.

종교현상은 지구 위에 생존하는 많은 생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볼 수 있는 특유한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Homo Sapience)이며,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존재(Homo Faber)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동물(Homo Religious)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종교를 통해 인간은 인간 본래의 모습, 궁극적 실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교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성스러운 실재와의 만남은 그 어떤 경험보다도 가장 강렬하고 본질적인 경험으로서 삶의 의미와 역동성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B. 종교의 역할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 '궁극적 실재'로서의 종교라는 관점에서, 종교의 역할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는 궁극적인 실재를 찾도록 돕는다. 사람은 자기의 유한성과 한계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를 초월하는 궁극적인 실재와의 관계를 찾도록 도움을 준다.

둘째, 종교는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궁극적인 실재와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며, 인간의 행동에 목적을 부여한다. 그리고 각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인식,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삶의 무의미함과 허무함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셋째,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스스로를 낮추고 비우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참된 종교는 인간이 자신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긍정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역동적이 된다.

•인간은 종교를 통해 본래의 모습, 궁극적 실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교현상들이 나타난다

•어떤 성스러운 실재와의 만남은 그 어떤 경험보다도 가장 강렬하고 본질적인 경험으로서 삶의 의미와 역동성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간을 그려낸 것이다. 윌리엄 텔이 게슬러라는 폭군이 벗어놓은 모자에 절을 하지 않자 폭군은 그로 하여금 아들의 머리에 놓인 사과를 쏘게 한다. 그의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윌리엄 텔은 사과를 명중 시켰다. 아들과 떠나려 하는 그의 거드랑이에서 화살이 하나 떨어지자 게슬러는 그 화살은 무엇이나고 묻는다. 윌리엄 텔은 '만약 아들이 다치기라도 했다면 당신의 심장을 쏘려고 했던 것이요'라고 대답했다. 이 때 게슬러는 그를 체포하려하지만 스위스 민병대들이 들이닥치고 텔의 화살은 게슬러의 가슴에 꽂힌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사과는 '변화와 투쟁을 위한 사회'를 의미한다.

정운영 교수가 말하는 범주(category)에 의하면, 세계관의 의미를 인간, 자연(우주), 사회라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세계관은 인간, 자연, 사회에 대한 이해와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해와 태도에 근거해서 삶과 행동을 선택하고 결단한다. 세계관은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체적 목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주체적 목적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어떻게 살며, 어떤 결단을 하는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된다.

B. 나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Q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의 가치가 있는가?

Q

- 인간은 무엇이며, 자연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나?

Q

- 나는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회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C. 세계관에 대한 다양한 견해

앞서 살펴본 정운영 교수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관이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계관은 '자연과학적 세계관'이다. 자연과학적 세계관에 의하면

세계관을 보는 세 가지 사과의 의미

• 첫 번째 사과: 아담의 사과-인간의 실존을 보는 가치관

• 두 번째 사과: 뉴턴의 사과-자연 속에서 과학을 보는 가치관

• 세 번째 사과: 윌리엄 텔의 사과-변화를 위한 투쟁의 가치관

간을 그려낸 것이다. 윌리엄 텔이 게슬러라는 폭군이 벗어놓은 모자에 절을 하지 않자 폭군은 그로 하여금 아들의 머리에 놓인 사과를 쏘게 한다. 그의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윌리엄 텔은 사과를 명중 시켰다. 아들과 떠나려 하는 그의 거드랑이에서 화살이 하나 떨어지자 게슬러는 그 화살은 무엇이냐고 묻는다. 윌리엄 텔은 '만약 아들이 다치기라도 했다면 당신의 심장을 쏘려고 했던 것이요'라고 대답했다. 이 때 게슬러는 그를 체포하려하지만 스위스 민병대들이 들이닥치고 텔의 화살은 게슬러의 가슴에 꽂힌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사과는 '변화와 투쟁을 위한 사회'를 의미한다.

정운영 교수가 말하는 범주(category)에 의하면, 세계관의 의미를 인간, 자연(우주), 사회라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세계관은 인간, 자연, 사회에 대한 이해와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해와 태도에 근거해서 삶과 행동을 선택하고 결단한다. 세계관은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체적 목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주체적 목적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어떻게 살며, 어떤 결단을 하는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된다.

B. 나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의 가치가 있는가?



- 인간은 무엇이며, 자연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나?



- 나는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회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C. 세계관에 대한 다양한 견해

앞서 살펴본 정운영 교수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관이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계관은 '자연과학적 세계관'이다. 자연과학적 세계관에 의하면

세계관을 보는 세 가지 사과의 의미

• 첫 번째 사과: 아담의 사과-인간의 실존을 보는 가치관

• 두 번째 사과: 뉴턴의 사과-자연 속에서 과학을 보는 가치관

• 세 번째 사과: 윌리엄 텔의 사과-변화를 위한 투쟁의 가치관

학 발달이 인간에게 이롭기만 한 것인가?

지속적인 과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과학만능주의,’ ‘과학주의,’ 또는 ‘과학 제국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이 셋은 호칭은 다르지만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과학만능주의 자들은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과학적 방법을 비단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주제에서만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비과학적 측면들이나 가치 함축적 것들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과학을 진리에 이르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길이라고 여긴다. 철학자 톰 소렐(T. Sorell)은 "자연과학을 다른 학습이나 풍습의 갈래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게 치는 것"이 과학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한다.

과학은 초월적 세계를 외면한다. 진리의 인식이 오로지 지각을 통해서 가능하며, 지각적 대상은 반드시 물리적 현상이라 여긴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리 현상이라는 주장은 독단적이다. 이들은 과학을 진리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자원’이 아니라 진리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과학 그 자체는 신비로운 것, 초월적인 것, 역설적인 것, 많은 경우 심미적인 것을 다룰 수 없다. 과학적 방법은 측정 가능한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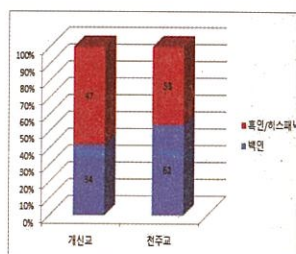
과학만능주의자들은 우주가 스스로 생겼다고 주장한다. 자연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우주가 창조되어 생명의 신비가 만들어 졌다고 본다. 우주를 이루는 물질이나 재료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며, 이러한 물질들이 발전해서 맹목적이고 무시간적인 우연의 진행에 의해 우리가 보는 질서 있는 우주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또한 하나의 추론에 불과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설명한다.

우주 탄생에 대한 논리적 오류

옥스퍼드 대학 수학 교수 존 레녹스는 「우주 탄생의 비밀」에서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빅뱅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박한다.

첫째, 우주가 무(無)에서 창조 되었다고 했을 때 무(無)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호킹은 이 부분을 중력의 법칙으로 설명하나 레녹스는 중력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無)라는 그의 주장에 위배 된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는 “우주에 존재하는 자연 법칙이야 말로 우주 탄생과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라는 호킹의 말은 자기모순이라 설명한다. 자연 법칙은 ‘자연’이 먼저 존재해야만 설명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 것도 없는 무(無)의 상태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무엇인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과학적 설명이라고 말



진화론을 신뢰하는
기독교인 비율(미국)

과학의 한계

●과학은 초월적 세계를 외면한다.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우주가 스스로 생겼다고 주장한다.

아이작 뉴턴의 과학과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중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아이작 뉴턴이다. 그는 1642년 12월 25일에 잉글랜드 동부 링컨셔주 울즈소프에서 태어났다. 그는 성직자는 아니었지만, 신앙심이 매우 깊었다고 한다. 유대교적 유일신론을 신봉했으며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하게 말하지 말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네"라며 말하며 과학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표현했다.

아인슈타인의 생각

최고의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과학과 종교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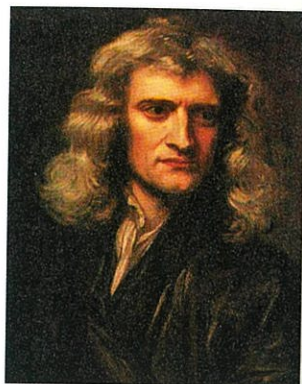
Science without religion is lame, religion without science is blind.

종교 없는 과학은 불완전하며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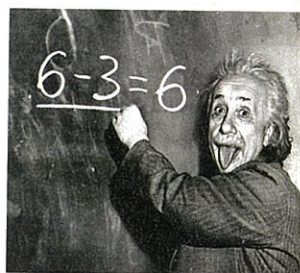
위의 인용문은 1941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것이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앞에서 도킨스 박사와 같이 자연 과학적 만능주의에 따라 종교를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며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과 종교적 신앙에 따라 오로지 창조적 관점만을 인정하고 과학적 연구나 사고를 모두 불필요한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 극단적 관점에 따라 과학은 종교에 불필요한 것이며 종교는 과학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인가? 위에 언급한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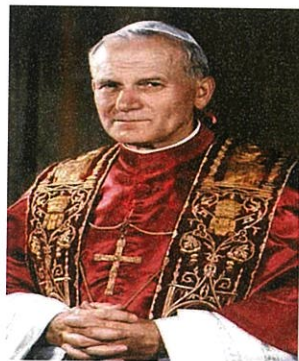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8년 "교회와 과학 공동체의 상호작용은 필연적이며,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상호 작용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어떻게 서로 보완할까? 그의 답은 분명 했다. "과학은 종교에서 오류와 미신을 걷어 낼 수 있고, 종교는 과학에서 맹신과 그릇된 원칙을 걷어 낼 수 있다" 즉 과학과 종교는 그 어느 쪽도 현실을 완전히 설명한다고 볼 수 없다. 상대



아이작 뉴턴



아인슈타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B. 정의와 은혜의 관계

영화 '레미제라블' 시청



시놉시스

이 영화의 주인공 장발장은 조카를 위해 작은 빵 하나 훔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는 탈옥과 고통의 감옥생활에서 드디어 모범수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가 갈 곳이 없었다. 그런데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주교의 집에서 은 식기를 훔친다. 경찰에 잡힌 그는 주교의 집으로 다시 끌려간다. 그런데 주교는 놀라운 은총(은혜)의 태도를 보여, 장발장에게 은 식기를 선사하고 풀려나도록 한다.

자비로운 행위(용서)는 그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뒤흔든다. 그는 이 사면을 바웃고 거절할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오랫동안의 자신의 삶을 지배해온 증오를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베풀어 준 은총(은혜)에 굴복하기로 마음먹는다. 장발장은 오랜 세월동안 인간에 대한 증오와 완고함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뿌리깊은 자기 연민과 원한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타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는 존재의 뿌리에서부터 변한 것이다. 은식기를 훔친 자신을 감싸주는 신부의 조건없는 사랑과 은혜는 그를 바꾸어 놓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토록 하였다.

또 다른 주인공은 법을 수호하는 자베르 경감이다. 그는 보상과 처벌(즉 율법 혹은 정의)이라는 틀 위에 자신의 인생을 구축해 왔다. 그는 냉혹하고도 독선적으로 장발장을 뒤쫓는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마침내 자베르는 장발장의 손아귀에 떨어진다. 그러나 장발장은 그를 죽이는 대신, 그를 놓아준다. 이 충격적인 은총의 행위가 자베르의 마음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는 여기에 올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자베르는 그런 변화를 택하기보다 차라리 세느강

만델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다. 그것이 그의 건강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마침내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보복과 증오를 끊고 화해와 사랑의 정치를 실천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나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Key words

- 하나님, 사랑, 부모님, 인격적 만남
-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 10-11

하시며, 찾기 원하시며, 기대하길 원하시며, 믿길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예배(禮拜)’이다. 예배는 두 세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뵈고, 찬양하고, 뜻을 배우는 것이다.

성경은 인격적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하다. 나라가 망했을 때, 상실감과 삶의 역경을 경험하며 살고 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고 희망의 음성을 들었다.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함께 기도와 예배를 하며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를 꿈꿨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때, 그분은 나의 삶의 고비고비 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릴 때 나는 내 삶의 이런 저런 사건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일상의 조그마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만난 만델라 대통령

세계 정상 중 가장 감옥에 오래 있었던 사람, 바로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흑인 인권운동가이다. 27년간의 감옥생활 때문에 그가 출옥할 당시 사람들은 허약한 몸을 한 넬슨 만델라를 예상했다. 그런데 그의 나이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을 걸어 나왔다. 그를 취재하러 나온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였다. 기자는 만델라에게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에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2011. 01. 28



남아공 넬슨 만델라 대통령

부모님과 소통하기

Q

- 부모님과 친밀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어떻게 아버지나 어머니와 친밀함을 높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전화, 이메일, SNS, 선물, 이야기하기, 영화 관람 등)

B. 하나님과 소통하기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길

하나님께서 자신이 낳은 피조물들을 위해 베풀어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되새겨야 한다. 따라서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이 필요하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방법은 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 용어로 '기도(祈禱)'라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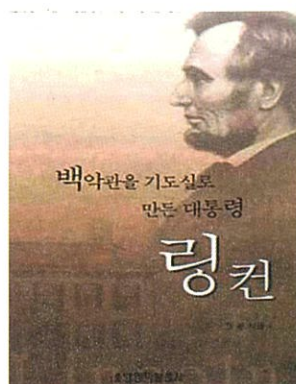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 3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한 대통령 링컨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링컨(A. Lincoln)은 1861년부터 암살된 1865년 4월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다. 남북의 갈등과 내부적 위기를 잘 이끌어 내어 미국 연방을 성공적으로 보존하는 지도자였다. 또한 흑인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통과하도록 힘을 모았다.

그가 미국 정치에서 큰일을 했지만, 그는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나이 10세 때 어머니가 죽고, 20세 때 누나가 죽었고, 37세 때 약혼자까지 죽었다. 그는 변호사가 되었지만, 나중에 미국 하원 의원을 한 번 했지만, 상원의원 선거에 두 번이나 고배를 마시는 아픔도 겪은 사람이다. 한 작가는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고 하였다.



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독교 전래 초기 의료 선교는 기독교를 경계하던 정부와 사회전반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알렌의 광혜원에서 보여준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 비천한 천민에 이르기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는 의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계층적인 소외감을 없애 주었다.

이후 1908년까지 무려 20여개의 기독교계 병원이 설립되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다. 이 중에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保救女館)'도 기독교가 세웠다. 이 병원은 감리교 목사 스크랜튼이 1887년 서울 정동 이화학당 안에 마련하였다. 남녀유별의 사회 속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保救) 병원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구호기관을 주도적으로 설립하게 되었는데, 장애 아동, 맹인, 나병환자들을 위한 기관을 세웠다. 그리고 고아원, 양로원 등의 자선기관이 전국적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사회변혁과 민족운동

초기 한국 기독교는 반봉건적 잔재인 계급사회의 타파와 여성의 해방과 인권옹호, 미신타파와 관혼상제의 개혁, 한글보급을 통한 문명퇴치, 독립협회를 통한 민족의식 고취와 민권 운동의 전개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1905년 이후에는 애국애족 운동에도 앞장서서 3.1운동을 주도하여 민족대표 33인중 16명의 기독교 대표자가 서명하였다. 3.1 운동이 민족 운동이 되도록 승화시켜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교회당이 민족운동의 조직체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족운동으로 세계만방에 알게 하는 일 또한 중추 세력인 당시 교회가 담당했다.

일제 강점기 때 기독교는 민족의 자주와 계몽운동을 위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물산장려운동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신민회, 105인 사건, 3·1 만세운동 등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을 기념비적 사건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

그 외에 기독교가 사회개혁에 앞장을 섰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반봉건 반부패척결과 신분타파에 앞장섰다. 조선말기 관리들의 부패, 타락, 협잡에 항거하여 변화를 촉구했다. 교회는 신분의 구분없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또한 남존 여비를 타파하고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 기독교 인권운동을 펼쳤다. 조선사회는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하였다. 교회는 1890년대 말에 인권제도 수립을 촉구했다.
-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였다. 당시 인구 1천 2백만 명에서 기독교 인구

타파하는데 앞장섰다. 당시 한국 사회는 개화와 근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히 팽배해 있었으며, 그 때 이미 육영 공원이라는 근대식 국립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근대 교육을 담당할 세 사람의 교사를 미국에 요청했다. 그래서 한국에 파견된 세 사람이 바로 모어, 병커, 헬버트였는데, 이 중 헬버트는 고종의 신임을 얻어 1905년 을사조약 이후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 헤이그 밀사들의 활동을 돕는 등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인물이다.

이후 1885년 2월 감리교회 선교사인 아펜젤러에 의해 배재 학당이 설립되고, 이어 스크랜튼 선교사가 1886년 이화 학당을 세웠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연희대학, 정신 여학교(북장로회), 평양의 숭실 학교, 승의 여학교 등이 설립되는 등 전국적으로 선교의 일환으로 많은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09년까지 설립된 기독교계 학교 수는 950여 개에 이르렀다. 이는 실로 놀라운 결과였다. 우리 사회는 이로써 서당중심의 교육, 양반계층 중심의 교육, 남자우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신학문의 통로가 열리게 된 것이다.

교육 선교는 서구 학문의 수용, 기독교 정신의 전파, 그리고 한국 전통 문화의 진작이라는 세 가지 의미로 집약된다. 기독교 학교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서는 민족 운동의 선구가 되어 많은 민족 운동 지도자가 배출되어 독립운동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주시경, 안창호, 조만식, 서재필, 윤치호 등).

한국교회는 의료와 구제를 통한 빈민사역

기독교는 유난히 한국 최초와 관련이 깊다.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 최초의 유아 교육 시설인 이화유치원과 중앙유치원 등이 모두 선교사들의 손에 의해 세워졌다. 변변히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의 열정은 열악한 조건에도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었던 많은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1884년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한 재일 선교사 맥클레이는 김옥균을 통해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 사업에 대한 재가를 얻어내었다. 이에 그 다음해인 1885년, 미국 감리회는 교육 사업을 위해 아펜젤러를, 의료 선교를 위해 스크랜튼을 파송하게 된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거처를 정하고 자리를 잡은 개신교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알렌이었다. 그는 처음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나 그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마침 미국 공사관이 서울에 개설되고 상주하는 외국인 수요가 많아지자 미 공사관의 공의(公醫)자격으로 1884년 9월에 입국하였다. 조선에 입국한 알렌은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민영익의 부상을 치료해준 것을 계기로 조정의 신임을 얻게 되고 마침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



알렌 선교사

C.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토마스의 순교와 복음 전파

아래 이야기는 제너럴서면호가 침몰할 때 토마스 선교사 한 일이다.

제너럴서면호가 움직일 수 없어서 조선 군인에게 잡힐 때 쫓이었다. 선장은 "항복하면 돌려 보내주겠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는 소리와 함께 조선의 군사들을 향해 대포를 발사하였었다. 선장의 비열한 처사에 화가 난 조선의 군사들이 일제히 횃불을 싣고 서면호에 접근하여 불화살을 쏘아대었다.

이때 이 순간에 토마스 목사는 "야소" "야소 믿으시오!" "야소!" 소리쳤다. 그리고는 배 안에 있던 성경을 군사들에게 던졌다. 순간 두 팔을 높이든 토마스는 "야소!" 큰 소리로 외치더니 강물에 뛰어내렸다. 해엄을 쳐서 물으로 나온 그를 목베이려고 누군가 칼을 쳐 들었을 때, 부교인 박춘권은 그를 생포하도록 명령하였다. "당신은 총 한번 쏘지 않고 책만 던지던데."

부교인 박춘권으로 하여금 참수토록 명하였다. 토마스와 함께 죄수로 묶여 있는 그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만을 찾은 뿐이었다.

대동강변에서 국법에 따라 한 사람씩 목을 베는 형벌이 실시되었다. 선장과 중국서기인 조능봉, 이팔행이 먼저 목베임을 당하였다. "다음 영국 야소교목사 토마스"라고 하자. 북소리가 동-동-동 울리기 시작했다.

칼을 잡은 박부교의 손이 높이 올려진 순간이었다. "잠깐만 이걸 받아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이 말에 멈칫하고 놀란 박춘권 부교는 토마스 목사가 내미는 작은 보따리를 얼떨결에 받아들였다.

그러자 토마스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1866년 9월 5일 28세의 젊은 나이로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 목사는 대동강의 한사정 백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뿌렸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한 선교사

토마스는 비록 통역관이었지만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마음이 컸다. 그 자신이 꿈꾸었던 선교사의 본분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조선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처형되는 마지막 순간 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였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서 읽고 훗날에 유력한 신앙인이 되었다. 그들은 한국 처음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선교사가 처형당한
대동강변

한다는 정신이 밀바탕에 깔려 있다. 그래서 이러한 헤세드의 정의는 인간을 넘어서 동물들과 땅에게도 적용이 된다. 안식일에 사람이 쉬어야 하는 법은 동물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7년간의 농사와 추수가 있는 후에는 땅도 일 년간은 쉬어야 했고, 곡식을 떠는 소에게도 재갈을 물리지 않음을 통하여 소들도 일하는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이다(출애굽기 23: 12, 레위기 25: 5, 신명기 25: 4).

헤세드의 정의를 나타내는 성경은 다음과 같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헤세드)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호세아 6: 6

C. 샬롬: 평화를 이루는 정의

'샬롬'의 어원과 의미

샬롬은 '평강', '평화'라는 뜻이다. 샬롬의 정의는 전쟁이 없는 상태 즉, 좁은 의미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회경제적 영역내의 모든 이들을 향한 돌봄이 이루어지며, 시대 속에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된 상태를 의미한다.

샬롬의 정의가 실현된 성경의 예

'미스바'와 '헤세드'가 정의의 여러 가지 차원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샬롬은 그 이상의 의미, 즉 완벽하고 완전한 정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샬롬의 정의가 가지는 정의의 영역은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공동체의 비전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매우 넓다. 그러나 이 넓은 영역 가운데서도 샬롬이 가지는 한가지 공통점은 그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 평화'이어야 하고, 인간 누구도 그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샬롬의 정의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 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 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미가 3: 1~3

위 성경 구절은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괴롭히는 장면을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온 옛 이야기같이 보이지만, 오늘날에도 자행되고 있는 곳이 많다.

이처럼 성서에서 ‘미스바’의 정의는 당시 사회의 약자계층이었던 고아와 과부, 유랑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신명기 10: 18, 시편 103: 6).

B. 헤세드: 사랑의 정의

‘헤세드’의 어원과 의미

헤세드는 ‘인자’, ‘은혜’, ‘사랑’이라는 뜻이다. 헤세드의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의미한다.

헤세드의 정의가 실현된 성경의 예

헤세드의 정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보편적인 사랑이다. 미스바의 정의는 제도적이고 관습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헤세드의 정의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다 가져야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의이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베푸는 사랑이고 은혜를 말한다.

헤세드의 정의가 나타나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농부들이 추수할 때 벼 이삭을 남겨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이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물건을 빌려주면서 댁들은 절대로 담보물로 받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댁들은 사람의 의식주 생활 중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물건을 빌려간 사람이 물건을 되돌려 주지 않더라도 물건을 빌려간 사람의 집에 난입할 수가 없었다. 그 대신 빌려간 사람의 집 앞에서 물건을 되돌려주기를 기다려야 했다(레위기 19: 9~20, 신명기 24: 10~11).

이러한 엄격한 행동의 지침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헤세드의 정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세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호평등하고 존중해야

나는 직업상 군인이며,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제가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군인은 세우기 위해 허뭅니다. 아버지는 허물지 않고 세울 뿐입니다. 전자는 죽음의 잠재력을 안고 있지만 후자는 창조와 생명을 구합니다. 많은 적군을 죽이는 것도 강하지만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더욱 강합니다. 내가 죽은 후 내 아들이 전쟁터의 내가 아니라 가정의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입니다.



Douglas MacArthur,
1880~1964

3)나는 앞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엄마/아빠가 되기를 희망하나?

-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어떤 점이 좋을까?

토론

C. You Raise Me Up

노래의 가사를 음미하고, 함께 부르거나 들어 보자.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내 영혼 힘들고 지칠 때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괴로움 밀려와 나의 마음 무겁게 할 때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당신이 내 곁에 오실 때까지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정상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당신이 날 떠받쳐 줄 때 나는 강해집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게 합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정상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당신이 날 떠받쳐 줄 때 나는 강해집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게 합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정상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당신이 날 떠받쳐 줄 때 나는 강해집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게 합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정상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당신이 날 떠받쳐 줄 때 나는 강해집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게 합니다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중심을 이루셨다.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삶은 곧 기독교적 문화를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 문화의 두 핵심 단어

기독교의 문화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다. 그것은 ‘생명’과 ‘하나님 나라’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의 존엄성: 성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세기 1: 26)라는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인간 생명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간은 누구나 그 존엄성을 갖고 태어났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기독교 문화는 인간의 존엄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 나라”의 가르침과 비유를 많이 언급하셨다. 즉 그리스도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뜻에 맞는 통치와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중심 주제인 “인간존엄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회에 공동선(common good)을 말한다. 이것은 땅의 문화가 가치의 중심에 두고 있는 ‘물질’은 인간 생명을 돕는 수단일 뿐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마태 6: 33)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다. 인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잠언 3: 5~6), 인간은 누구나 나뉘지 않는 ‘가치’를 내적욕구(육체, 정신, 영)로 두고 살아간다. 그러나 각 개인의 가치인 개인선(private good)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우리는 공동선 혹은 생명 중심의 문화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중심의 문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 존재의 가치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문화는 ‘물질’보다 ‘생명 존재’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 음식, 의복, 주거보다 더 귀중한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마태 6: 25). 사람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웃의 삶과 소중함

기독교 문화의 인간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인간 생명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중심 메시지며,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통치를 받는다.

5. 기독교의 종교적 요소

기독교는 인간의 종교성을 다양한 형태와 교리로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형태는 예배와 기도이며, 교리는 죄와 구원(천국)에 관한 내용이다.

A. 예배(禮拜, Worship)

영어에서 '예배(worship)'라는 단어는 'worth-ship'에서 왔다. 원래 이 단어는 앵글로 색슨(Anglo-Saxon)족의 'Weothscipe'에서 온 단어로서 이후에 'worthship'에서 'worship'으로 변하였다. 이 말은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예배란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일이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와 찬양을 올려 드린다.

B. 기도(祈禱, Prayer)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할 만큼 기도를 강조한다.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세 가지로 이해하고 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이다. 기도는 대화의 통로이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이기도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대화상대로 여기신다.

둘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의 생명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산소와 음식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존재로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과 양식을 섭취해야 한다. 기도는 영적인 존재가 마땅히 해야 하는 호흡이자 양식의 공급이다.

셋째,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많은 아픔과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신다. 나의 소원을 빌고 아뢰는 시간이 기도이다.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는 우선적으로 "예배와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 인간의 종교성을 표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예배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일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

●기독교인들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와 찬양을 올림.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 교제

●영혼의 호흡

●문제 해결의 열쇠